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운동 1천만원 쾌척

양돈협 포천지부 송년의 밤 개최 전달행사 가져

지난 19일 포천시지부는 송년의 밤을 통해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모금한 1천만원을 전달했다.

19일 오후 7시 대한양돈협회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가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포천시 용정회관에서 열린 이날 송년회 밤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이강림 시의원,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김명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및 지역 양돈농가, 축산인 등 2백여명이 참석해 다채롭게 준비된 행사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역축산업과 양돈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올 한해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특히 포천지부가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모금한 1천만원에 대한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박호근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동안 양돈산업은 돼지고기 생산의 많은 부족과 미국 수입쇠고기로 인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 증가로 돼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농가 소득이 향상되어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오는 정해년에 포천 양돈농가들은 전국 최고의 돼지브랜드를 만들어 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연말연시 무재해 강조기간 캠페인

경기북부지도원, 12월28일 의정부시 녹양지구 현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12월28일 의정부 녹양지구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출근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무재해 강조기간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의식 이완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2월16일부터 2007년1월15일까지 연말연시 무재해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로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캠페인을 통한 노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동절기 산재예방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주택공급정책 장기 추진방향 제시

수도권 협의체구성 정부정책 광역적 대응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주택정책광역협의체를 결성해 정부정책과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11·15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의 증가와 시설녹지의 감축은 서민층을 위한 주택건립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임을 감안 최소한의 용적률 상향(150% → 180%이내) 및 시설녹지 감축(40%→25%선)조정하고 아파트위주의 주택공급으로 경기도의 주거환경이 20-30년 뒤 슬럼화 될 우려성이 있는바, 왜곡된 주택공급정책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수립승인 시 전원주택 단지, 빌라 등 주거의 다양화와 친환경 주택공급체계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3년간 경기도의 주택공급은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택지에서 421천 가구, 재개발 3천 가구, 재건축 18천 가구 등 총 44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에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주택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등 중앙과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기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 향후 경기도 주택시장은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재테크 16

재무설계로 가정경제 희망 찾기

"지금 생활 형편이 어떠세요?"

"빠듯하죠."

"작년엔 어땠죠?"

"작년에도 물론 빠듯했죠."

"그럼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올해와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렇다면 5년 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긴 한숨...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치솟는 집값,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아이들 교육비, 다가오는 노후 등등. 누구 한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적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여기서 통근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묻지마식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로 한탕하려고 한다(결국 온 가족이 길바닥으로 나앉는다). 몽상가들은 매주 로또를 사서 되지도 않는 꿈만 꾸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현실의 상황과 타협하고 적당히 술마시고 적당히 TV 프로그램을 탐닉하고 적당히 놀고 먹으며 삶을 소비하며 산다. 이렇게 산다면 가정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고, 우리의 꿈과 희망의 실현은 매우 어렵게 된다. 어떠한 꿈과 희망도 현시대에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그 방법으로 재무설계를 제안하고 싶다. 사실상 지금의 금융환경은 개인들이 혼자서 자기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낮은 금리, 고물가, 저출산, 고령화, 복잡한 금융상품, 전 세계 시장의 동조화 현상 등 심지어 전문가들 조차 따라갈 수 없는 금융환경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임에도 단편적인 내용 밖에 전달하수 없는 재테크 서적,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재테크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여 자산운용을 하게 되면 자산 증식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무설계 전문가에게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①저축금액은 적정한지, 투자 방법은 적절한지 ②자녀교육은 충분히 시킬 수 있는지 ③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④노후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⑤가입한 보험이 뜻하지 않은 사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더 이상 미래가 막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게 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전문 재무설계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설계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거나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하겠다고 말한다. 단언컨대 여유있는 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54%는 완전 무일푼이고, 36%는 이미 사망하였고, 5%는 아직 일을 해야 하고, 4%는 여유있게 살고, 1%만이 매우 풍요롭게 살게 된다."고 한다. 이 엄청난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 있다. 미래에 대한 현명한 투자는 오늘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전문의에게 진찰과 진료를 받고 약사에게 약을 받는 것과 같다. 황금 돼지 해. 모두 부자되세요!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15 어울리오

매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어울리오

대표 김 영 춘

생활가구에 걸 맞는 세트 침대 생산에 주력
최신형 바지걸이 가격 · 디자인 · 기능 우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새로운 감각으로 유니크한 공간미 제공으로 가구에 아름다움을 더하며 고객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어울리오(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536-4 대표: 김 영춘).

CNC 루터·몰딩·래핑 등의 임가공과 공간미에 어울리는 침대/바지걸이/보석함 제작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어울리오는 MDF·PB·PVC·가구문짝 디자인·가구 손잡이·자바라·하시라 등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과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취급하며 가구계의 샛별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NC 멤브레인 분야를 시작으로 가구업에 입문해 각종 인테리어와 디자인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 노력한 결과 지난해 위 곳에 어울리오라는 상호로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유난히 많다는 김 대표는 "가구시장의 디자인 주기는 다른 업계보다 매우 짧아서 히트상품의 수명도 거의 3년을 넘기기가 어려워 제품개발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가구 생산업체에 가구문짝·가구손잡이 등에 필요한 디자인을 제공해 업체가 의뢰하는 제품은 정교한 감각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김 대표는 바지걸이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해놓고 있으며 그밖에 여러 가구부품에 다양한 변화를 꾀하며 국내 대형시장보다는 틈새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개발하며 자사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김 대표가 개발한 최신형 바지걸이는 기존의 PVC, 원목을 대신해 MDF를 이용한 올래핑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 심플한 디자인, 편리한 기능, 강도 면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타 업체에서 공조하기를 희망할 정도로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김 대표는 우아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바램에 가구와 맞는 침대와 협탁 등을 같은 컬러로 세트화 시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 고객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 대표가 원하는 시스템 제작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 고객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름다운 생활공간 제공으로 쓰면 쓸수록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가구에 필요한 제품 디자인 개발에 남다른 열정과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김 대표는 현재 고정적인 업체 30여 곳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기술이나 모든 라인분야에서 인정받는 가구 인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어울리오는 김 대표와 10여명의 전문직 직원들이 자사의 모든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모든 역량을 모아 자기 몫 이상으로 열심히 근무하면서 불황을 타개하고 있다.

어울리오가 상호에 걸맞게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해 어느 공간, 어느 곳에서라도 어울리는 우아하고 심플한 제품생산으로 보다나은 생활공간을 제공해주길 기대해 본다.

문의)Tel 031)536-9091 Fax 031)536-9092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CNC 루터·몰딩·래핑 등의 임가공과 공간미에 어울리는 침대/바지걸이/보석함 제작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어울리오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현금영수증 받을 땐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세요

①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② 편리합니다

-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줄 필요 없이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만 제시하면 되므로 편리합니다.

③ 빠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 발급시간이 빨라집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배송해 주며,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으로 발급 받은 카드는 자동등록 되지만, 세무서 신청으로 발급 받은 카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등 단체는 인근 세무서에 요청하면 종사직원 등에 대해 일괄하여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발급 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더라도 신용카드·적립식 카드 등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육상하역 호퍼내부 사료덩어리 분쇄작업 중 매몰

▶ 재해발생 개요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서 사료 하역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 신호수인 재해자가 육상에 설치된 하역기구인 깊이 5.3m 호퍼내부로 들어가 개구부를 막고 있는 사료덩어리 분쇄작업중 사료에 매몰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 원인

가. 호퍼내 안전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호퍼내부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서 근로자가 출입시에는 호퍼상단에 사람이 빠지지 않는 구조의 매쉬형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미설치 되었음.

나. 치공구 사용 부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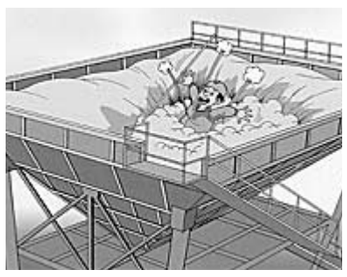
호퍼 배출구(0.5×0.5㎡)가 막히는 경우 호퍼 배출구 아래에서 길이가 짧은 금속봉(약120㎝) 및 대나무로 작업을 실시하여 덩어리가 제대로 부수 어지지 않자 호퍼내부로 들어가 분쇄작업을 실시하였음.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호퍼내 안전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호퍼 내부에 입자상태의 원료가 들어있는 경우 붕괴 등 위험이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호퍼 상단으로부터 아래 약 1m 지점에 사람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경고한 매쉬형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작업에 적절한 치공구 사용

호퍼 높이에 맞는 치공구를 사용하여 호퍼 배출구가 막힐 경우 호퍼 상단에서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재해발생상황도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저출산 · 고령사회로 인해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2050년 노인비율 37.3%로 초고령 사회 진입

사용자 – 출산율 높이거나 제도개선만이 해결책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2020년엔 4996만명이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2020년 1.24명, 2050년에는 1.3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01년 예상치보다 무려 70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반면 고령사회 진입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50년엔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7.3% 될 것으로 내다본다. UN은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을 넘으면 '고령사회'로 보고 있으며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연기금에 영향을 준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수령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다.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2036년부터 적자가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 그렇게 되면 2047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지금의 20, 30대부터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특히 연금을 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 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자 연기 2050년엔 1000만 명 선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금 가입자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는 셈. 현재는 연금가입자 1명이 노인 0.1명을 맡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기금적립금 규모는 133조원.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공적사회보장제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중이다.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5년마다 인구·물가·임금 등 사회·경제적인 상황변화에 기초해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수급구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